

한전공대, 최고 에너지 연구 대학 기틀 다졌다

1560억 대형사업 수행기관 선정
정부·기업 연구과제 336억 수주
예산 삭감·감사 등 혼란 속에도
학생·교수 200명 1년 반만에
특허 12·논문 175건 괄목할 성과

#“입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하에 국제적으로 손에 꼽히는 교수진과 소수 정예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습량이 많아 밤을 새울 때도 있지만, 에너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대(켄텍) 캠퍼스에서 만난 2학년생 김수하(20)씨는 공학자를 꿈꾸며 지난해 쉼 없이 캠퍼스의 첫 입학생이자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3학기 째를 다니고 있는 지금, 쉼 없이 선택한 것에 100% 만족하고 있다. 다만 쉼 없이 관련 학부 기금 삭감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었다. 김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쉼 없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나 1학년들 중에는 특히 걱정하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켄텍이 개교 1년여 만에 위기를 맞았다. 최근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재정난과 정부·여당 등 정치권에서 불어온 외풍, 상급기관의 감사가 이제 막 끝날까를 시작한 신생 대학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켄텍은 지난 2022년 세계유일의 에너지특화 대학으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념과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문을 열었다. 단 순 교육기관 역할을 넘어 에너지 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호남 쉼 없이주기’ 결과물(?)이라는 정치적인 시선과 학교 운영에 쓰이는 출연금을 약속한 에너지공기업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학교 안팎으로 뒤숭숭한 모양새다.

윤의준 쉼 없이 총장은 “켄텍은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재’라며 “켄텍을 부정하는 이들의 논리는 비약돼 있으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쉼 없이의 진면목을 여야 할 것 없이 제대로 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쉼 없이 1년 만에 교육계와 학계, 산업계에 보여준 성과는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쉼 없이 측은 강조했다. 지난해 에너지신소재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에너지공대(켄텍) 캠퍼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쉼 없이는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캠퍼스 설립계획을 세웠지만,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의 출연금이 삭감되면서 공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산업화 플랫폼 센터, 초전도 연구센터, 차세대 그리드 센터 등 156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정부와 민간기업 연구과제도 336억원에 달하는 수주액을 올렸다.

연구와 학술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쉼 없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특허 12건과 논문 175건, 학술발표 148건 등을 쏟아냈다. 학생들이 거둔 성과도 특별하다. 지난 5월 2학년 학부생 3명은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주최의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고, 또 다른 2학년 학생도 한국산업융합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뒀다.

박진호 쉼 없이 부총장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해 불과 200여 명에 불과한 대학에서 이 같은 연구성과를 올린 건 학계에서도 놀랄만한 성과”라며 “특히 최고참이 2학년에 불과한 신생 대학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쉼 없이는 독일 프라운호퍼 수소에너지 연구소를 유치해 한국이 앞으로 세계 수소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다. 프라운호퍼가 현재 수행중인 동남아시아 수소에너지 개발 사업에 쉼 없이 사업수행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향후 사업 참여시 국내 기업들의 수소에너지 관련 동남아시아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물하나로 ‘불안하게’ 문을 열었다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쉼 없이가 가진 학생 선발 방법과 교

육시스템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교육(IBL) 프로그램에는 대구시교육청, 광주지역교장단 등 국내 교육계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켄텍에서 개발해 미국교육공학회 최우수 개발상을 수상한 첨단교육 시스템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쉼 없이 학부 신입생 107명 가운데 7명 만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자퇴율은 6.4%. 지난해 국내 최고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의 신입생 238명(7%)이 자퇴를 택한 것과 비교해 보면 쉼 없이의 교

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쉼 없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개교한 쉼 없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며,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지 쉼 없이와 한전, 쉼 없이를 지원하고 있는 전남도·나주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감사 관련)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1년밖에 안 됐는데 허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주=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주 한일 외교장관 회담...오염수 방류 입장 조율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예상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염수 방류 논란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국제 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결론이 도출된 지 일주일여 만에 한일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오염수 이슈에 대한 자국의 최종 입장을 교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4-7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일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서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IAEA와 그로서 총장의 방한에 대해 협의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친환경 녹색건축물 광주시, 설계기준 강화

광주시는 2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도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대상이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그동안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했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무화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도 강화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건축물 전부 1++등급으로 2단계 이상 강화했다. 민간건축물은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1+-2등급으로 1단계씩 강화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도 강화하고,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까지,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300㎡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까지 확대했다. 설치비율은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은 40%, 민간건축물은 16%까지 높이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실·국장 프로필 ▶5면

‘달빛 소나기’ 광주·대구 청년들 문화 소통 ▶11면



KIA, 정해영 복귀해도 마무리는 최지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포스코그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철강과 함께한 50년

미래소재와 함께할 100년

지난 50년간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포스코그룹
앞으로는 친환경 미래소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

1973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친환경 미래소재 개발로 지속 성장

수소환원제철 전환 완료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

차세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 구축

2030 이차전지소재 글로벌 Top Player 도약

2023
이차전지 소재사업 본격화

이러한 미래수립을 위한

포항제철소 조강 850만 톤 세계 구축

포항 광양 4만세기 대학사 완성

중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글로벌 철강사업 확대

철강을 넘어 트레이딩 에너지 등 그룹 사업영역 확장